

2009-8

Music
Industry
Issue Paper

2009 대중음악페스티벌 현황진단 및 발전방안

Dec, 2009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예술경영연구소

한국콘텐츠진흥원



<차례>

1. 개요	3
2. 해외 대중음악페스티벌 현황 및 진단	4
<input type="checkbox"/> 해외 대중음악페스티벌 현황	
<input type="checkbox"/> 해외 대중음악페스티벌 성공요인	
3. 국내 대중음악페스티벌 현황	7
<input type="checkbox"/> 국내 대중음악페스티벌 현황	
<input type="checkbox"/> 대중음악페스티벌 의의와 효과	
<input type="checkbox"/> 국내 대중음악페스티벌 유형별 현황	
4. 국내 주요 대중음악페스티벌 세부 현황	12
<input type="checkbox"/> 동두천 락 페스티벌(www.krock21.net)	
<input type="checkbox"/> 쌤지사운드페스티벌(www.ssamziesoundfestival.com)	
<input type="checkbox"/> 부산국제락페스티벌(www.rockfestival.co.kr)	
<input type="checkbox"/> ETP 페스티벌(www.etpfest.com)	
<input type="checkbox"/> 지산밸리락페스티벌(www.valleyrockfestival.com)	
<input type="checkbox"/> 렛츠락 페스티벌(www.letsrock.co.kr)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 라이브 뮤직 페스티벌(www.livemusic.co.kr)	
<input type="checkbox"/> 자라섬재즈페스티벌(www.jarasumjazz.com)	
<input type="checkbox"/> 그랜드민트페스티벌(www.grandmintfestival.com)	
<input type="checkbox"/> 2009년 신생 페스티벌	
5. 국내 대중음악페스티벌 문제점 진단	23
6. 결론 및 발전방안	25
[참고자료]	27

1. 개요

-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대중음악페스티벌이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로 1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공연산업에 대한 음악계 관심이 집중되면서 2007년을 전후하여 개최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그 중에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음악산업의 새로운 활력소로 주목받게 되었다.
- 2000년 이후 급격하게 침체된 음악산업의 대안으로 공연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지자체가 발달하고 지역축제가 활성화 되면서 지역과 결합한 지역문화콘텐츠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으로 생겨나면서 급격하게 대중음악페스티벌이 증가되었다.
- 해외 대중음악페스티벌은 1960년대 록음악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면서부터 시작되어 30년 이상의 전통을 갖고 있으며 대부분 민간기업이 주최하고 자체적 경영구조를 갖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경제적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시장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 최근 몇년간 음악페스티벌의 가능성과 부가가치가 부각되고 신생 음악페스티벌이 급증하는 등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2009년 한 해 동안 개최된 대중음악 페스티벌 현황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고 해외 대중음악페스티벌과 비교하면서 대중음악 페스티벌의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발전 전망을 모색해본다.
- 각종 페스티벌 사례연구와 발전방안 모색 등은 문화관광정책연구원 [대중음악페스티벌의 전략적 육성방안]을 비롯한 각종 논문 자료 등의 기존 연구를 참조하였으며 콘텐츠진흥원의 [대중음악페스티벌을 위한 간담회]를 통한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였다.

2. 해외 대중음악 페스티벌 현황 및 진단

□ 해외 대중음악 페스티벌 현황

- 대중음악페스티벌은 1960년대 유럽·미국 지역에서 락 음악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주로 민간자본을 바탕으로 젊은 층의 지지를 받으며 성장하였다. 때마침 음향기기 및 전자악기의 발달은 대규모 음악페스티벌이 개최될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을 형성시켜주었으며, 1960년대 중반부터 불기 시작한 반전·평화운동은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락 페스티벌의 개최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림> 취리히 스트리트 퍼레이드 행사장 전경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 캠핑장 풍경

- 유럽의 대중음악 페스티벌은 시장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International Live Music Conference¹⁾ 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0개의 유럽의 대중음악 페스티벌은 2008년 평균적으로 89%의 관객점유율을 기록하며 2007년 대비 5% 성장하였다. 참고로, 이 조사에 참여한 100개 페스티벌의 2008년 총 수용인원²⁾은 3백만 명이고, 관람객수는 총 270만 명에 달한다.
- 미국 페스티벌 시장은 아직 발전단계에 있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08년 한 해에만도 브리티시 콜롬비아, 샌프란시스코, 덴버, 오하이오, 미시간, 뉴저지 등에서 6개의 메이저 페스티벌이 새로 개최되었다.
- 미국의 페스티벌은 캠핑을 하며 밤새 다양한 음악공연들을 즐기는 유럽식 페스티벌과는 달리, 대부분 도시를 중심으로 실내 경기장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날씨와 관계 없이 개최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아직까지 일주일 이상을 임시적으로 캠핑을

1) 라이브 뮤직 산업 진흥을 목표로 전 세계 공연산업에 종사하는 인사들이 모여 매년 2회 영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협의회 (www.ilmc.com)

2) 페스티벌 내에 수용가능한 인원수

하며 페스티벌을 즐기는 유럽인들의 전통이 미국 시장에 공유되고 있지는 않으나, 미국 페스티벌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캠핑 문화도 곧 정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그러나 대형 기획자들이 페스티벌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과열되고 있어, 일시와 장소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라인업의 구성에도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가간 저가 항공 등 다양한 교통 수단이 발전되어 있고 해외 관객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환경 요인이 제공되는 유럽과는 달리, 미국의 페스티벌은 긴 이동거리와 고가의 이동비용 등이 관객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해외 대중음악페스티벌 성공요인



<그림> 몬트리올 재즈페스티벌 풍경

- 유럽과 미국의 대중음악 페스티벌은 경제적·사회적으로 많은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어, 우리의 대중음악 페스티벌의 발전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하면 첫째, 해외 대중음악페스티벌은 역사가 30년 이상 오래되었고, 락 음악의 발전과 함께 자연스럽게 탄생한 음악적 장이라는 점이다. 페스티벌은 오랜 역사 속에서 소비자들의 음악적 소비 패턴을 읽어내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였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정착할 수 있었다.
- 둘째, 성공적인 해외 페스티벌은 재정구조상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건실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은 민간기업의 꾸준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몬트리올 재즈 페스티벌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공로를 인정받아 중앙 정부와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 후지락 페스티벌은 스폰서 없이 자체적으로 안정적인 경영구조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체적 경영구조를 확립하고, 입장권수입, 기업의 지원, 자체 광고수익, 방송중계료, 기념품 판매 등으로 페스티벌 수익의 다변화를 꾀하면서 상업적 성공을 이끌고 있다. 이처럼 건실한 경영구조는 음악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 고용창출과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며, 음악페스티벌의 선순환 구조의 정착에 기반이 되고 있다.

- 셋째, 페스티벌의 전문성이 확립되어 있다. 각 음악 페스티벌은 성격이 명확하고 프로그램의 취지와 방향성이 뚜렷하다. 운영진은 전문적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 역시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기획과 운영이 가능했다고 분석된다.

3. 국내 대중음악페스티벌 현황³⁾

□ 국내 대중음악페스티벌 현황

- 대부분 음반시장 쇠퇴 후 음악산업 부흥의 돌파구로서 기획되었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의 테마로 기획되었다. 본질적인 성격에서 해외 대중음악페스티벌과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 페스티벌 재원구조는 상업적으로 탄탄한 해외 페스티벌과는 달리, 국내 페스티벌은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개최되는 사례가 많은 편이다. 민간기업의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재정의 자생력이 부족해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페스티벌 개최가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몇 년 사이 쌈지 사운드 페스티벌,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그랜드민트 페스티벌, 자라섬 뮤직 페스티벌 등 국내 대중음악페스티벌의 성공 사례들이 점차 증가하고 음악페스티벌의 부가가치 및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최근 신생 음악페스티벌이 급증하고 있다.
- 그러나 개최 경쟁 과열로 인해 페스티벌의 초기 정착비용이 상승하고, 정착기간이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의 국내·외의 경제적 불황까지 겹치면서 향후 국내 페스티벌의 성공률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이미 음악소비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페스티벌의 확대 흐름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 대중음악페스티벌 의의와 효과

- 대중음악 페스티벌은 TV나 라디오 등 대중매체에서 편중되게 보이는 유명 아티스트 뿐 아니라 인디밴드나 비인기 장르의 여러 음악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최근에는 재즈나 락 등 페스티벌의 전통적인 장르적 편향이 점점 줄어들고 소비층도 마니아에서 일반 소비자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3) 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8), 채지영 [대중음악페스티벌의 전략적 육성방안] 발췌

- 음악페스티벌은 개최되는 지역 사회 주민들의 자부심을 고취시켜 지역사회의 단결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 아티스트들에게는 관객과 직접 만나는 소중한 음악적 장이자, 음악인들 간의 교류의 장이기도 하며 페스티벌을 통해 음악인들의 교류는 점점 국제화되고 있으며, 국내 뮤지션들의 해외 진출 기회도 부쩍 증가하고 있다.
- 음악 페스티벌은 고용유발, 지출유발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면서 음악적 가치뿐 아니라 상업적인 가치도 확대되고 있다. 영국의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의 예를 살펴보면, 페스티벌 개최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표 1-1>과 같으며,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낸다.

<표 1-1>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 개최로 인한 수량적 효과

개최연도	고용효과	경제적 지출효과
2004년	·인원 : 1,100명 ·급여 : 50만 파운드 (약 9억원)	·예산지출 : 1,400만 파운드 (약 252억원)
2005년	·인원 : 1,100명 ·급여 : 75만 파운드 (약13억5천만원)	·지역경제 전이효과 : 5,000만 파운드(약 900억원)
2007 1)년	-	·공연수입 : 2,000만 파운드 (약 360억원) ·예산지출 : 2,100만 파운드 (약 3,800억원) ·소비지출 : 5,200만 파운드 (약 9,400억원)

* 출처 : Baker Associates, 『Glastonbury Festival 2007 Economic Impact Assessment 보고서』 2007
South West Tourism, 『The Value of Tourism』 2005

* 환율 : 1파운드 = 1,800원

- 페스티벌은 단순 경제적 효과를 넘어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 음악페스티벌은 대외적인 지역 이미지와 인식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관광객의 지역 방문을 촉진시키며,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킨다.
- 또한 페스티벌과 연관된 상업기회가 증가되고 페스티벌을 통한 마케팅·프로모션의 기회도 증가하게 되어 문화산업으로서 갖는 부가가치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
- 한국에서는 특히 페스티벌을 통한 신인밴드 발굴 등 인디음악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대중음악 축제의 성장과 함께 적어도 향후 10년은 인디음악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4)

4) <한국의 인디레이블> 가슴네트워크,

□ 국내 대중음악페스티벌 유형별 현황

○ 주요 페스티벌 개최시기별/ 장소별 현황

No	페스티벌이름	시작년도	시점	지역	장소
1	인천 펜타포트 락페스티벌	2006	7월(3일)	인천	인천 송도공원
2	ETP FEST	2001	8월(1일)	서울	잠실경기장 일대
3	동두천 락페스티벌	1999	8월(2일)	경기/동두천	소요산 및 동두천
4	지산밸리락 페스티벌	2009	7월(3일)	경기/이천	지산포레스트리조트
5	그랜드민트페스티벌	2007	10월(3일)	서울	올림픽공원 일대
6	렛츠락 페스티벌	2007	9월(1일)	서울	서울시내
7	광명음악축제	2005	10월(3일)	경기/광명	광명시 문화의 거리 일대
8	부산 록페스티벌	2000	8월(3일)	부산	부산시 다대포 해수욕장
9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2004	9월(3일)	경기/가평	경기도 가평군 자라섬 일대
10	대한민국 음악축제	2004	8월(8일)	강원속초	강원도 속초시, 설악
11	쌈지싸운드페스티벌	1999	10월(1일)	서울/경기	기존서울시 2009임진각
12	인디뮤직(라이브뮤직) 페스티벌	2005	10월(1일)	서울	서울시 홍대 일원
13	광주인디음악페스티벌	2003	11월(3일)	광주	전남대 및 클럽네버바인드

*자료출처 : 각페스티벌 홈페이지

- 주요 페스티벌은 시기별로 보면 야외활동에 적합한 공연 성수기 시즌인 여름 7~8월에 집중되어 있으며 뒤를 이어 가을시즌인 9월부터 10월에 집중되어 있다.
- 국내 대중음악페스티벌 역사와 함께 시작된 1999년을 기점으로 페스티벌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해마다 꾸준히 새로운 페스티벌이 생겨났으며 위의 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최근 3년간 더욱 증가하였다.
- 주요 페스티벌은 서울/경기를 기반으로 개최되며 지역의 경우는 부산,광주, 속초 정도이며 부산록페스티벌 정도만이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다.
- 국내 대중음악페스티벌은 역사가 길지 않으며 최대 11년이고 평균적으로 3년 이상의 페스티벌이 대다수다.
- 또한 지역으로 갈수록 장소적 여건이 확충되어 있고 거리가 멀수록 장기간의 캠프형 페스티벌이 많으며 서울일대에 페스티벌의 경우는 도심형 락페스티벌 형태가 대다수를 이룬다.

○ 페스티벌 성격별 현황

No	페스티벌명	가격	재원구조	장르	출연진	부대행사
1	인천 펜타포트 락페스티벌	5만원	인천시지원 민간기업지원	록, 일렉	국내외 록뮤지션	부스/캠핑존 운영
2	그랜드민트페스티벌	6만원	민간주도	팝	국내외 팝뮤지션	이벤트부스
3	지산밸리락페스티벌	8만8천원	민간주도	록,팝 등	해외 팝/락뮤지션 및 국내 밴드	캠핑존, 부스 운영
4	ETP FEST	19만8천원	민간주도	록	해외 락뮤지션 및 국내밴드 일부	이벤트
5	동두천락페스티벌	1만5천원	지자체후원	록	국내 록뮤지션 및 해외 일부 록뮤지션	락밴드경연대회
6	렛츠락페스티벌	2만5천원	민간주도	록	국내 록뮤지션	-
7	광명음악축제	무료	지자체후원	팝, 락, 트로트, 등	주류 대중음악 뮤지션	실용음악강좌
8	부산 록페스티벌	무료	지자체후원	해비메탈/ 록	국내외 록뮤지션(해외 10%)	공로상
9	자라섬재즈페스티벌	2만5천원	자자체후원	재즈	재즈뮤지션 (해외60%)	전시/이벤트/ 경연대회
10	대한민국 음악축제	무료	지자체후원	팝, 락, 트로트, 등	팝, 록, 재즈, 트로트, 클래식, 국악 모두 포함	부스운영
11	쌈지싸운드페스티벌	2만5천원	민간주도	인디록	록뮤지션(해외5%)	부스운영
12	인디뮤직 페스티벌 (라이브뮤직페스티벌)	무료~1만원	문화관광부 지원	인디록	록	인디레이블 마켓
13	광주인디음악페스티벌	2~3만원	민간주도	인디록	인디밴드	-

- 주요페스티벌은 공공기관 후원일 경우 무료일 경우나 만원 정도 수준의 저렴한 티켓가격인 것에 비해 민간기업 주도로 진행되고 해외뮤지션 공연이 포함된 경우에는 10만원 이상의 높은 가격을 나타내고 있다.

페스티벌가격변화



- 대다수의 페스티벌은 록음악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중음악축제를 표방하면서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페스티벌이 늘어나고 있다
- 페스티벌 부대행사의 경우 대다수는 후원기업들의 부스 운영 등으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며 동두천 락페스티벌의 밴드 경연대회 광명음악축제의 실용음악경연대회 등을 비롯하여 부산록페스티벌의 공로상 등 음악관련 경연대회 및 시상식 운영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편이다.
- 2000년대 후반에 생성된 페스티벌들의 경우 민간주도가 많지만, 아직도 많은 페스티벌이 지자체의 지원금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 2007년 이후 새롭게 등장한 페스티벌⁵⁾

시작	페스티벌명	페스티벌특성	운영특성
2007	원드림 월드뮤직페스티벌	월드뮤직축제, 다양한 수요층족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지원
	그랜드민트페스티벌	20~30대 여상타킷 .피크닉 음악축제	민간기업지원
	서울 월드디제이페스티벌	음악체험문화예술공존 다양한 종류의 재즈공연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지원
	렛츠락 페스티벌	국내아티스트공연	민간기업지원
	울산 월드뮤직 페스티벌	월드뮤직축제, 다양한문화수요층족	민간기업지원
	강릉 경포락 페스티벌	한국락의오버씬과 인디씬의 통합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지원
2008	뮤직스페이스	국내인디뮤지션들의 공연	공공기관지원
	플라워/파워콘서트	전세계 포크팝아티스트공연남북평화 기원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지원
	넥스트 플로어	클럽문화활성화, 다양한 흥대문화콘텐츠 촉육성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지원
	대구 국제 재즈 페스티벌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한 대중친화적 음악공연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지원
2009	타임투락페스티벌	엠넷미디어가 주최한 대한민국 록페 스티벌	민간기업지원
	서울캠핑페스티벌	서울 한강 르네상스 완성기념 캠핑 을 특징으로 내세운 페스티벌	공공기관 지원
	2009대중음악축제	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하고 신인뮤지 션 발굴 및 소개하는페스티벌	공공기관 지원
	마로니에 재즈페스티벌	사단법인 한국재즈협회가 주최하고 종로시가 후원한 국내재즈뮤지션들 이 공연하는 페스티벌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지원

- 2007년 이후 생겨난 신생페스티벌의 경우 기존 대중음악 페스티벌이 록음악에 치중했던 것에 비해 월드뮤직, 재즈, 일렉트로니카 등으로 장르가 다양해졌으며 내용이 참신해졌다.
- 특히 민간기업 위주의 페스티벌이 늘어나면서 공공기관 지원 비율이 낮아진 특징도 갖고 있다.

5) 문화관광정책연구원 <대중음악페스티벌전략적육성방안> 49P 2007-2008 시작된 페스티벌 비교- 추가변형

4. 국내 주요 대중음악페스티벌 세부 현황

□ 동두천 락 페스티벌(www.krock21.net)



- 시작 : 1999년(11회째)
- 시점 : 매년 8월~9월, 2009년 8월 14일~16일
- 장소 : 동두천시종합운동장(199-2001, 2004-2006), 소요산(2002-2003, 2007-2009)
- 주최 : 동두천락페스티벌 조직위원회 / 후원 : 문화관광부
- 연혁 :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소요록페스티벌'로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2003년엔 '한일 월드락 페스티벌'이름으로 개최된바 있음
- 가격 : 1일권 15,000원 2일권 25,000원 3일권 30,000원
- 출연진(2009) : 백두산, 이현우, 김중서, 문희준, 내귀에 도청장치, 디아블로, TORN(일본), 닥터코어911, 네바다51, 슈퍼키드,뷰렛 등
- 후원: 문화부, 경기도, 동두천시, 한국철도공사,
- 의의
 - 기존 미군 주둔으로 인해 부정적 이미지였던 시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구상되었으며 신중현을 비롯한 초창기 락밴드들의 주 활동지였던 동두천의 의미를 살리고자 시작됨
 - 현직고교 교사로 구성된 조직위원회가 2년간의 연구와 토의를 통해 만들
- 특징 : 신인 등용문
 - 초기부터 계속되어온 '전국 고교 및 대학, 일반 락밴드 경연대회'를 통해 신인발굴
 - 페스티벌 캠프를 통해 락매니아와 뮤지션과 함께 하는 밴드 클리닉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바 있음

□ **쌈지사운드페스티벌(www.ssamziesoundfestival.com)**



- 시작 : 1999년(11회째)
- 시점 : 매년 10월, 2009.10.10~11
- 장소 :

1999	연세대학교 노천극장	2000	연세대학교 노천극장	2001	연세대학교 노천극장
2002	성균관대학교 대운동장	2003	이화여대 대운동장	2004	성균관대학교 대운동장
2005	한양대학교 종합운동장	2006	올림픽공원 잔디마당	2007	한강공원 난지지구
2008	올림픽공원 잔디마당	2009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 첫해부터 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이후 2005년까지 대학캠퍼스에서 지속되어 왔으나 소음 및 사후 처리 문제 등으로 올림픽공원 등의 야외시설로 변경됨

- 규모 : 매년 3만 여명
- 입장료 : 기존 5천원~2009년 25,000원
- 구성 : 숨은고수(신인들), 무림고수(현재 활동중인 음악가들), 물 건너온 고수(해외 음악가들)
- 출연진(2009) : 김창완 밴드,노브레인,릭스,로로스,문샤이너스, 백두산 with 김구라, 불나방스타쏘세지클럽,뷰렛,세렝게티,슈가도넛,장기하와얼굴들,크라잉넛,텔레파시,피아,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 등
- 특징
 - 11년 역사와 함께 대표적인 대중음악축제로 자리매김
 - '숨은 고수'를 통한 신인밴드 발굴을 통해 등용문 역할
 - 컨셉형 페스티벌 지향 : '착하게살자' '죽도록 사랑하자' '생긴대로 살자' '웃으면 복이와요' 등의 슬로건을 내세움
 - 깜짝게스트를 통해 화제유도 : 락음악가가 아닌 유명인, 아이돌, 트로트가수 등
 - 기본적으로 인디(출신) 밴드들이 중심을 이루지만 주류음악인들도 아우름
 - 초기 대학캠퍼스라는 장소적 여건과 저렴한 입장료 등으로 젊은이들의 축제로 자리잡음

□ 부산국제락페스티벌(www.rockfestival.co.kr)

- 시작 : 2000년(10회째)
- 시점 : 매년 8월(2~3일), 2009. 8. 7(금)~9(일)
- 장소 :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기존에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2002년 이동)
- 행사규모 : 9회까지 19개국 192개 밴드 출연, 2009년 5개국 35개 밴드
- 관람규모 : 2007(7만명), 2008(5만명)
- 주최 :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 후원 : 문화관광부
- 입장료 : 무료
- 개최의의
 - 바다가 자원인 부산의 도시이미지 '해양성, 개방성, 젊음'을 나타내는 축제의 장으로 '바다, 젊은 사랑'이란 주제로 진행됨
 - 다른 지역의 락페스티벌이 단절되는 것에 비해 안정적 행사진행으로 전통유지
- 부대행사 : 우수 신인 밴드 선정 시상(전야제) 및 공로상 시상(2001~2005)
- 출연진(2009) : 국내 - 백두산, 김창완밴드, 언니네 이발관, 뷰렛, 노브레인, 피아, 레이니썸, 세렝게티, 럭스, 검정치마 이지형, 트랜스 픽션, 네바다51 등 해외- 오버킬, 츠치야 안나, 케이타쿠 등
- 특징
 - 캠핑과 결합된 최초의 락페스티벌로 대규모 야영장이 완비되고 해수욕장에서 진행되며 무료로 볼 수 있는 등 수준높은 관객 편의 제공
 - 아마추어 경연대회를 통해 신인밴드 발굴

□ ETP 페스티벌(www.etpfest.com)

- 시작 : 2001년(5회째), 2001-2002년, 2004년, 2008년 개최
- 시점 : 매년 8월(1일~2일) 2009. 8. 15(1일)
- 장소 : 잠실주경기장 일대
- 주최 : 서태지컴퍼니, 주관 : 예당엔터테인먼트
- 입장료 : 성인 198,000원 청소년 110,000원(2009), 132,000원(2008)
- 출연진(2009) : 킨, 림프비즈킷, 나인 인치 네일스, 서태지, 페이드, 검엑스, 피아, 붐부세틀라이츠 등
- 특징
 - 라인업 중 해외 뮤지션의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도심형 락페스티벌
 - 서태지가 기획하고 국내외 유명 뮤지션들이 출연하는 구성방식
 - '무대'와 '음향' 등 퀄리티 높은 무대시설 및 물량
 - 일본의 섬머소닉과의 협력 체제를 통한 라인업 공유

□ 인천 펜타포트 락페스티벌(Pentaport Rock Fest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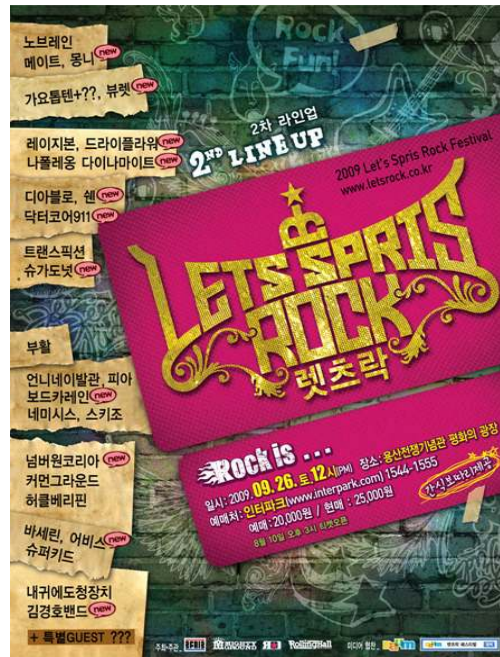
- 시작 : 2006년(4회) (1999년 트라이포트락페스티벌이 개최된바 있음)
- 시점 : 매년 7월(3일) 2009. 7. 24~26
- 장소 : 송도시민공원 대우자동차판매부지
- 주최 : 인천광역시, SBS(2009), 주관 : 인천시 관광공사, 아이에스컴
- 입장료 : 1일권 5만원 2일권 7만원 3일권 9만원
- 관람규모 : 5만명(2009, 주최측추산)
- 주요구성 : ‘빅탑스테이지’(메인무대), ‘펜타포트 스테이지’(서브무대), 그루브 스테이지로 구성
- 출연진(2009) : 99앵거, 갤럭시 익스프레스, 검정치마, 고고스타, 국카스텐, 네바다 51, 노브레인, DEFTONES, 렉스, 로로스, LENKA, 문샤이너스, 서울전자음악단, 소규모아카시아밴드, 슈가도넛, 스키조, ESKIMO JOE, 코코어, 크리스탈 레인, CRYSTAL METHOD, 킹스톤 루디스 카, 한음파, 할로우 잰, 허클베리핀 등
- 특징
 - 국내 및 세계 유명뮤지션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대형록페스티벌
 - 1999년 송도에서 개최된 대형음악축제 트라이포트(Tri-port) 락 페스티벌의 역사를 계승하는 의미로 대규모 페스티벌의 부활로의 의미를 지님
 - 첫해부터 스타 뮤지션들을 헤드라이너로 배치, 대형음악페스티벌에 목말랐던 음악팬들의 관심을 일시에 집중시키며 한국의 대중음악페스티벌로 자리매김
 - 인천이라는 원거리에도 불구하고 넓은 공간에서 많은 공연을 한꺼번에 볼 수 있고 만나기 힘든 해외 록스타의 공연을 볼 수 있다는 매력을 유지해왔음
 -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을 단순한 페스티벌이 아니라 대중음악팬들의 여름 휴가로 공식화함

□ 지산밸리락페스티벌(www.valleyrockfestival.com)



- 시작 : 2009(1회)
- 시점 : 매년 7월(3일) 2009. 7. 24-26
- 장소 : 경기도 이천시 지산 포레스트 리조트
- 주최 : 옐로우엔터테인먼트
- 관람규모 : 약 5만여명(주최측 추산) 2천500여명 캠핑
- 가격 : 1일권 8만 8천원, 2일권 13만 2천원, 3일권 16만 5천원
- 부대행사 : 각종 부스운영, 캠핑존 운영
- 무대구성 : 빅탑스테이지(BIG TOP STAGE) 그린스테이지(Green Stage)
- 출연진(2009) : 이한철, 언니네이발관,닥터코어911, 타카피, 바세린, 비둘기우유, 요조, 보드카레인, 질은, 오아시스, 위저, 폴아웃보이, 아시안 쿵푸제너레이션 등
- 특징
 - 일본 전통의 락페스티벌인 후지록 페스티벌을 주최하는 스매쉬 코퍼레이션과 업무제휴를 통해 유사한 성격을 띄고 있음
 - 다른 페스티벌과 차별화 되는 '리조트'라는 페스티벌 공간의 특징을 살린 자연친화적 캠핑형 '푸른 락 페스티벌'의 콘셉트를 표방
 - 티켓 판매량의 75% 가량이 3일권으로 캠핑장 야영 관람객이 대다수를 이룸
 - 티켓 구매자 평균 나이가 29~30세 정도로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의 축제'인 락페스티벌의 저변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다른페스티벌에 비해 페스티벌 부스가 다양하게 운영되었으며 다양한 페스티벌 패션, 페스티벌용 깃발 문화 등 페스티벌문화가 다채롭게 나타남

□ 렛츠락 페스티벌(www.letsrock.co.kr)



- 시작 : 2007(3회)
- 시점 : 매년 9월(1일) 2009. 9. 26
- 장소 :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2008 올림픽공원 잔디마당, 2007고려대녹지운동장)
- 주최 : 롤링홀 엔터테인먼트, 주관 : 마이티그라운드, 록스타 뮤직
- 관람규모 : 약 2만여명
- 가격 : 25,000원(현매기준)
- 출연진(2009) : 노브레인, 스키즈, 바세린, 네미시스, 메이트, 커먼그라운드, 슈퍼키드, 부활, 트랜스픽션, 내귀에도청장치, 피아, 레이저본, 허클베리핀, 언니네이발관, 슈가도넛, 닥터코어911, 보드카레인, 뷰렛, 김경호밴드 등
- 특징
 - 진정한 국내 아티스트에 의한, 국내 아티스트를 위한, 국내 아티스트의 페스티벌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국내 락음악 밴드 위주로 초청함
 - 가을공연시즌 중 비교적 공연이 적은 9월에 공연을 하며 틈새시장을 공략하였으며 해마다 서울 도심에서 공연장소를 새롭게 발굴하여 공연함

□ 대한민국 라이브 뮤직 페스티벌(www.livemusic.co.kr)



- 시작 : 2005(4회)
- 시점 : 매년 10월(1일) 2009. 10. 17
- 장소 : 한강시민 난지지구
- 주최 : 라이브음악문화발전협회
- 가격 : 1만원
- 부대행사 : 로드락투어(Road Rock Tour)
- 출연진(2009) : 피아, 체리필터, 내귀에 도청장치 , 디아블로, 닥터코어 911, 크로우, 레이지본, 국카스텐, 서울전자음악단, 검정치마, 네미시스, 로맨틱펀치 등
- 특징
 - 2005년 흥대 앞 인디 뮤지션들의 목소리를 담은 인디뮤직페스티벌이 모태임
 - 인디 씬의 활성화와 라이브 공연장, 뮤지션 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단법인 라이브음악문화발전협회가 주축이 되어 흥대활동 뮤지션들이 주로 출연
 - ‘로드락 투어’ 등의 이벤트 행사를 통해 흥대/신촌 인근 라이브 공연장에서 진행 해오던 거점형 라이브 공연 ‘프리클럽페스트’를 확대하여 한달 동안 도심 주요 야외 공연 무대를 통해 찾아가는 음악, 라이브 공연의 접근성을 확장시켰음
 - 10월 2차 공연 성수기 시즌과 물리면서 저렴한 가격에 비해 참여도가 낮은 편

□ 자라섬재즈페스티벌(www.jarasumjazz.com)

- 시작 : 2003년(6회)
- 시점 : 매년 10월(3일) 2009. 10. 16~18
- 장소 : 경기도 가평군 자라섬 및 가평읍 일대
- 주최 : 가평군/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주관 :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 가격 : 1일권 2만5천원, 2일권 4만원, 3일권 5만원
- 공연규모 : 해외 27개팀 국내 50팀(총 77팀)
- 부대행사 : '자라섬 국제 재즈 콩쿠르'(3년), '아티스트 워크숍' 등
- 무대구성 : Jazz Island, Party Gym, Jazz Palette, JJ Street (총 7개 무대, 2009년)
- 관람규모 : 14만2천860여명(2009)⁶⁾, 7만명(2회)~10만명(3~4회) 13만7천명(2008),
- 출연진(2009) : 마리아 조앙,아비샤이 코헨,야론 헤르만,얀 뱅,아르베 헨릭센,엔리코 라바,치코 & 더집시즈,테리 린 케링튼, 리차드 갈리아노,고고스타, 소울스테디락커스, 락타이거즈, 라벤타나, 정중화 트리오 등
- 주요특징
 - 지역과 결합한 문화축제로 부가적 경제효과만 생산, 소득, 고용 유발효과를 합한 간접효과는 약 191억원에 달할 정도의 고부가가치 창출형 페스티벌⁷⁾
 - 10대~20대에 치중된 것이 아닌 가족, 성인, 지역민 등 다양한 연령층이 모두 즐길 수 있는 특징
 - '섬'이라는 높은 장소매력도와 독립된 페스티벌 공간을 통해 소음 등의 구애없는 편리한 운영가능
 - 자라섬페스티벌의 경우는 가족휴양/주말여행과 고급문화에 대한 욕구(needs)가 자라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결합한 결과로 휴양문화의 맥락에서도 소구됨⁸⁾

6) 경기일보, '가평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평가보고회 발전방안 모색' (2009/12/15)

7) 2009/14, 가평군 '가평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평가보고회'에서 3일 동안 외지관광객 14만2천860여명이 찾아 92억7천만원의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며 생산, 소득, 고용 유발효과를 합한 간접효과는 약 191억원으로 보고됨

8) PD저널, 차우진 '내키는 대로 듣기'(09/10/27)

□ 그랜드민트페스티벌(www.grandmintfestival.com)

- 시작 : 2007(3회)
- 시점 : 매년 10월(2일) 2009. 10. 24-25
- 장소 : 서울 올림픽공원
- 주최 : 민트페이퍼, 제작 : 마스터플랜, 엠넷미디어, 퍼레이드 후원:문화부, 서울시
- 공연규모 : 국내 및 해외 총 62팀 뮤지션
- 가격 : 2일권 95,000원 1일권 60,000원(현재)
- 부대행사 : 남녀 관람객을 엮어주는 '그랜드부킹페스티벌', 출연진의 사인회 등
- 무대구성 : 민트브리즈스테이지(스탠딩존 및 피크닉), 클럽미드나잇선셋(밴드음악 및비주얼아트), 러빙포레스트가든(어쿠스틱기반싱어송라이터)카페블로섬하우스(노천카페)(총 4개 무대)
- 출연진(2009) : 이적, 언니네 이발관, 마이앤티 메리, 줄리아 하트, 장기하와 얼굴들, 요조, 스위트피, 재주소년, 보드카레인, 더 크립스, 라세 린느, 맥시밀리언 헤커 등
- 특징
 - 록밴드 기반을 벗어나 전문보컬 및 솔로아티스트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 라인업(록이나 헤비메탈 같은 센 음악보다는 부드럽고 감성적 접근이 용이한 팀들을 주로 배치)
 - '피크닉 같은 페스티벌' 슬로건에 충실한 감성형 페스티벌 지향
 - 대중음악의 소비자들이 대부분 여성임을 파악하여 20대 후반 30대 초반을 겨냥한 여성형 페스티벌 지향
 - '락페스티벌' 보다 '가요페스티벌'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함
 - 피크닉 분위기를 위해 관람수용인원 제한제 실시하여 관람분위기 유지
 - 2008년 대비 2009년 40% 증가하여 4만명의 유료관객 동원 및 흑자전환⁹⁾

9) 한국경제, '이제는 축제도 수익내는 시대'(09/10/27)

□ 2009년 신생 페스티벌

1) 타임투락페스티벌

- 일정 및 장소 : 2009. 5. 30, 잠실올림픽주경기장
- 가격: 1만5천원
- 주최: 엠넷
- 출연진 : 김창완밴드, 부활, 넥스트, YB, 크래쉬, 노브레인, 크라이닝, 장기하와 얼굴들, 국카스텐,검정치마,갤러시 익스프레스 등

2) 한강캠핑페스티벌

- 일정 및 장소 : 2009. 9. 26-27, 서울 노을공원
- 주최 : 서울시/ 주관 : 상상공장
- 가격 : 무료 (서울 한강르네상스 준공기념)
- 출연진 : 이한철밴드,메이트,체리필터,김창완밴드, 노리플라이,포니,국카스텐,마이앤트메리,오지은,로로스

5. 국내 대중음악페스티벌 문제점 진단

- 페스티벌 서울 중심의 지역 편중 및 장르적 편중
 - 대다수의 페스티벌은 교통편 등의 문제로 인해 서울 도심 및 근거리 경기지방 일대에서 페스티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페스티벌 장소의 한계로 여타의 페스티벌이 동일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등 특색이 없는 편이다.
 - 또한 장르적으로는 야외공연에 적합한 밴드 편성 위주의 락음악페스티벌이 대다수를 이루어 지면서 페스티벌간의 차별점 없이 똑같은 출연진이 반복되어 무대에 서는 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최근 3년대 새롭게 신설된 페스티벌 경우 재즈페스티벌이나 일렉트로니카/댄스뮤직 등의 페스티벌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 페스티벌 시기적 편중 문제
 - 2009년 대표적인 대중음악축제인 '펜타포트 락페스티벌'과 '지산락밸리페스티벌'이 동일한 날짜에 진행되면서 시기적 맞물림에 대한 이슈가 떠올랐다.
 - 일반적으로 여름 성수기와 가을 시즌에 페스티벌이 분포되면서 차별성없는 페스티벌이 난립하고 일정/시기 등이 배분되지 않아 다른 페스티벌에 영향을 준다는 등의 사태가 나타났다.
- 소음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
 - 음악페스티벌이 개최되면 필연적으로 소음문제가 대두되며 지역민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힘든 상황으로 사전에 지역민의 충분한 설득과정이 요구된다
 - 페스티벌에서 접근성을 가장 우선시하여 시내공원 등에서 진행할 경우 소음 민원 관리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소음문제는 직접적으로 공연장소 섭외에 영향을 주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연진행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 재원조성 및 수익구조의 어려움
 - 국내 음악페스티벌은 투자 등의 재원조성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이는 해외 뮤지션 공연에 부가되는 원천세 징수 부담에 대한 부분 및 각종 세금으로 인해 수익이 나지 않는 취약한 수익구조의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다.
 - 음악페스티벌의 특징상 스폰서와의 유기적 관계가 중요하나 공연계의 악화된 수익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있어 기업관심이 적은 편이며 새롭게 늘어나는 페스티벌의 난립으로 인해 차별성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 공연장소 부족

- 국내 대중음악페스티벌 성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페스티벌 개최 장소의 부족으로 대다수의 페스티벌이 스포츠경기장과 시민 공원에서 개최하고 있지만 음악전문 시설이 아닌 것에서 생기는 문제와 도심에 있어 생기는 소음문제, 공원관리 문제 등이 부차적으로 따라와 장소 대여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 또한 대다수의 공연시설이 정상적 대관이 어려운 것도 문제가 된다.
- 접근성과 수용인원이 많은 가능 지역으로 서울시의 난지지구, 월드컵 공원 등이 추가로 발굴 가능한 곳이 더 있으나 관련 지자체 행사가 아닐 경우 대관이 어려운 점 등의 문제가 따라온다.

○ 초대권 관행과 무료공연 문제

- 대다수의 공연 시장의 문제지만 페스티벌 역시 업계내 만연된 초대권 배포 악순환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 또한 방송국, 지자체 등의 무분별한 무료공연의 남발로 인해 관객들 사이에 돈을 내고 공연을 봐야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이 문제로 이는 페스티벌 관객개발의 장애요인이 된다.

○ 해외페스티벌에 비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은 편

- 해외사례를 통해 보듯이 페스티벌이 지역과 연계되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등의 많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많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대중음악 페스티벌을 수용하고 있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의 포지셔닝도 어려운 실정인 것이 많다. 또한 많은 지자체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나 관광효과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6. 결론 및 발전방안

- 대중음악페스티벌은 10여년의 역사를 통해서 대중음악 발전에 이바지 해왔다. 특히 신인밴드 발굴, 대중음악 체험 기회 증대를 통한 잠재적 음악인구를 발굴해 왔으며 다양한 무대를 통해 음악인의 실력향상에 도움을 주었으며 아티스트간 교류에도 이바지 하였다. 특히 인디 음악 시장 성장에 기여함과 동시 음반산업 등이 쇠퇴됨에 따른 음악산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분야이다. 하지만 대중음악 페스티벌이 발전하는 만큼 여타의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이에 대한 논의나 연구가 그간 부족하였다.
- 2009년은 기존 페스티벌의 과열 경쟁을 비롯하여 새로운 페스티벌 증가 등으로 대중음악 페스티벌의 규모가 팽창되었고 수적으로 증가되었다. 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 해마다 신생 페스티벌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장르와 형태의 페스티벌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똑같은 라인업과 시기적 맞물림 등의 문제가 양산되고 있다.
- 대중음악공연페스티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연장소 부족문제와 재정구조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수단적으로 페스티벌을 만들어내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이는 페스티벌의 스스로 경쟁할 수 있는 자생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 장소 부족 문제 등을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페스티벌 장소 개발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소의 대여 부분은 서울시나 지방자치 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정부차원에서의 보조적인 행정적 지원도 필수적이다.
- 지속적으로 신생페스티벌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편중된 장르와 동일한 라인업 등의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페스티벌의 핵심이 되는 공연 질을 높이고 다른 여타 페스티벌과 차별화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참신한 구성과 기획이 요구되며 페스티벌 자체의 음악적 콘텐츠를 보강하고 관객층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 페스티벌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세금 문제 등은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음악페스티벌로서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수익창출의 길이 열려야 하고 기업후원 유치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서는 건강한 수익구조 개선이 필수적이다. 페스티벌 경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금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서 합당한 근거와 논리를 만드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 늘어나는 대중음악 페스티벌은 시기적으로 맞물리고 장르적으로 편중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페스티벌간의 소통의 창구를 열고 협의체를 형성하면서 일정과 시기를 배분하고 합리적 협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페스티벌간의 협력체제의 마련은 시종동안 계속되는 페스티벌간 시설 인프라 및 운영 노하우 등의 공유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대중음악 페스티벌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 음악페스티벌의 성장은 공연시장 뿐만 아니라 음악산업 전체적으로 그 중요성을 다시 검토해야하며 정책 관련자와 음악소비자의 관심 안에서 지속발전하면서 한국의 대중음악 페스티벌이 세계적 수준의 페스티벌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8), 채지영,유지연 [대중음악페스티벌의 전략적 육성방안]
각 대중음악 페스티벌 홈페이지
위키피디아(www.wikipedia.org)
대중음악페스티벌 관련 언론보도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음악 페스티벌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2009. 12.17 자료